

『英華字典』에 나타나는 음역 지명 표기 연구*

- 『米歐回覽實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성희**
oooooh55@korea.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2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에서 일치 |
| 2. 연구 방법 | 하지 않는 지명 표기 |
| 3.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의 비교 | 4. 나오며 |
| 3.1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에서 일치 | |
| 하는 지명 표기 | |

主題語: 영화자전(Ekazitten), 미구회람실기(Beoukairanzitki), 서양 지명 표기(the foreign place notation), 음역 표기(sound translation notation), 한자음(Chinese character sound)

1. 들어가며

본고는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의 지명 표기의 중국 표기로부터의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영화자전(英華字典)』(Lobscheid, 1866-1869)과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1878)¹⁾에 출현하는 지명 표기를 비교 고찰한 것이다.

서양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게 된 배경은 17세기 중국에서 활약하였던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발행한 세계 지도와 세계 지리서가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지리 지식을 중국으로 가져온 도구는 서양의 지리 번역서였고, 그 주체는 예수회 선교사들이었다. 당시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 S1A5B5A01028963)

** 고려대학교 강사

1)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는 1871년 미국과 유럽으로 파견된 메이지 정부의 고위 관료와 실무진들이 구미(歐美)에서의 활동 내역과 견문 내용을 일기와 같이 상세히 기록한 대외적인 공식 보고서이다. 『米歐回覽實記』는 구미 각국을 방문하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국가의 공적인 실황(實況) 보고서로서, 당시 통용되던 일반적인 표기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자료로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서양에 관한 지명 표기가 방대하게 망라되어 있어 서양 지명의 표기 형태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적합한 자료이다.

중국은 서양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예수회 선교사들은 지리상의 발견 등으로 서양에 알려진 세계 지리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한자를 이용하여 세계 지리서를 간행하였는데, 이것이 서양 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의 효시(嚆矢)였다²⁾. 당시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포교하기 위하여 지식 계층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서양의 지리 지식을 중국에 소개하기 위하여 해양 개척을 통해 발견된 서양 지명을 한자로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서양인 선교사들이 중국어로 펴낸 잡지와 번역서들이 당시 중국인의 세계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지리적 대발견’으로 평가하고 있다³⁾. 그 중에서도 세계의 지리 지식에 대하여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와 일본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이 최초의 한역(漢譯) 세계 지도인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1602)였다⁴⁾. 『坤輿萬國全圖』는 제작된 지 1여년 후에 조선과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중국의 지리학이 근대적인 학문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에서의 세계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 지명을 표기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세계 지리서로는 『직방외기(職方外紀)』(1623)⁵⁾와 『영환지략(瀛環志略)』(1849)⁶⁾, 『해국도지(海國圖志)』(1847)⁷⁾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한역(漢譯)된 서양 서적을 통하여 서양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며, 서양 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도 중국의 표기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한자 지명 표기의 기원은 중국에서 제작된 세계 지리서가 전래된 이후, 한자를 사용하여 지명을 표기하였던 중국의 표기 방식의 영향이 크다

2) 金敬鎭(1998)「漢字表記에 의해 形成된 外國地名의 考察」『人文社會科學研究』제5권,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259-261

3) 찌우전환 지음·한지은 옮김(2013)『지리학의 창으로 보는 중국의 근대』푸른 역사, p.6

4)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1602)는 선교사로 온 마테오리치(利瑪竇, Matteo Ricci, 1552-1610)가 중국에서 유럽의 지도를 한문으로 옮겨 제작한 최초의 세계 지도이며, 이를 통해 지구 전체의 모습이 중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5) 『직방외기(職方外紀)』(1623)는 중국 명나라 말기에 예수회의 이탈리아인 선교사 알레니(艾儒略, 1582-1649)가 한문으로 저술한 세계지리도지(世界地理圖志)로서, 마테오리치의 『만국도지(萬國圖志)』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증보한 것이다. 제1권은 아시아, 제2권은 유럽, 제3권은 아프리카, 제4권은 아메리카 및 메가라니카(당시 남쪽에 있다고 추정되는 대륙), 제5권은 해양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영환지략(瀛環志略)』(1849)은 중국 청대(清代) 아편 전쟁 이후 서계여(徐繼畬, 1795~1873)가 미국인 선교사 雅裨理(David Abeel)과 영국 영사관에서 직접 만나 질문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저술한 세계지리서(世界地誌書)이다. 서계여(徐繼畬)는 중국의 관리이자 지리학자로 외국과의 통상 무역을 담당하는 최고 관리를 역임하였으며, 외국의 지리와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서양인이 출간한 중국 관련 지리서를 모아 『瀛環志略』을 저술하였다. (페데리코 나시니 지음, 이정재 옮김(2005)『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소명출판, pp.65-66)

7) 『해국도지(海國圖志)』(1847)는 19세기의 대표적인 세계 지리서로서 청말(清末) 아편전쟁 등의 환란을 겪은 이후 저자 위원(魏源, 1794~1856)이 서양에 관한 다양한 서적을 수집하여 저술한 세계 지리서이자 경제서(經世書)이다. 『海國圖志』는 세계 각국의 지세(地勢)와 산업, 인구, 정치, 종교 등 다방면에 걸친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서양의 진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전략 개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양의 지리를 소개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特命全權大使 米欧回覽実記』(이하, 『米欧回覽実記』로 약칭)와 중국의 한역(漢譯) 세계 지리서인 『해국도지(海國圖志)』 및 『영환지략(瀛環志略)』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일본의 지명 표기에 대한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료의 범위를 넓혀 언어 연구의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사전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그 영향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는 당시 통용되던 지명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객관성을 더하는데 있어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일본의 근대어 성립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표적인 영중사전(英中辭典)인 『영화자전(英華字典)』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메이지 초기 중국의 지명 표기가 일본의 표기법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그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음역(音譯) 지명 표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치바 겐고(千葉謙悟, 2011)는 19세기 중국과 일본에서 간행된 대역사전(対訳辞書)에 나타나는 인명과 지명 표기를 중심으로 음역 어형(語形)의 다양성에 착목하여 음역표(音譯表)의 제정 등 규범화의 시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⁸⁾. 특히 『영화채림운부(英華萃林韻府)』(1872)에 제시된 음역표를 대상으로, 음역표를 작성하는 것은 서양 원어(原語)의 알파벳 또는 해당 음절에 대응하는 한자를 미리 정해둠으로써 음역 어형의 표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원칙이 마련되면 음역어는 서양 원음에 규칙적으로 대응됨에 따라 원어음(原語音)에 대한 추정도 용이해 진다고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음역어 사전사(辭典史)에 있어서 음역 지명을 체계적으로 수집한 최초의 사전에서부터 통시적인 입장에서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경호(1998)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외국 지명 중 ‘프랑스(France)’를 ‘불란서’로 읽거나 ‘도이칠랜드(Deutschland)’를 ‘독일’로 읽어, 실제 원음과 거리가 먼 한자 지명 표기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한국의 문헌에 대한 비교 고찰을 행하였다⁹⁾. 본 연구는 외국 지명의 한자 표기의 성립과 기원 문제에 관하여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한국에서 외국 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가 언제부터 유입되어 정착되었는가를 중국과 일본 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규명하고 있어 표기사(表記史)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연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귀웨이(沈國威, 1994)는 『英華字典』을 자료로 하여 근대 일본어와 중국어 어휘

8) 千葉謙悟(2011)「19世紀音訳語の資料・特徴・交流」『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別冊7』関西大学, pp.95-121

9) 金敬鎬(1998)「漢字表記에 의해 形成된 外國地名의 考察」『人文社會科學研究』제5권,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257-279

의 교류사(交流史)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는 『英華字典』의 출판과 편집, 발행 등 서지(書誌) 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英華字典』에 나타나는 역어 및 일본어 차용어(借用語)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자어의 생성과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행하였다. 본 연구는 『英華字典』이 근대 일본어의 성립과 역어(譯語)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미야타 가즈코(宮田和子, 2010)¹⁰⁾와 아라카와 기요히데(荒川清秀, 1997)¹¹⁾는 선귀웨이(沈國威, 1994)에서 『英華字典』의 서지 사항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기술한 바 있다.

그 밖에 『英華字典』이 다른 자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이자호(李慈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자호(2006)는 『英華字典』이 『부음삽도영화자휘(附音插圖英和字彙)』(1873)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양 문헌에서 일치하는 역어수(譯語數)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는 모리 오카 겐지(森岡健二, 1969)의 『附音插圖英和字彙』에 대한 『英華字典』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언급하며, 메이지 시대의 역어 특히 한자어 연구의 일환으로 두 사전의 영향 관계를 고려할 때에는 표제어 이외에도 역어수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행해진 후 그 영향 관계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그는 『附音插圖英和字彙』에 미친 『英華字典』의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¹²⁾.

이와 같이 현재까지 『英華字典』에 대한 연구는 해당 표제어의 역어수를 집계하여 그 영향 관계를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英華字典』의 전문(全文)에 출현하는 지명 표기를 대상으로 하여 메이지 초기의 서양 전문록인 『米歐回覽實記』의 실제 표기례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영중사전(英中辭典)인 『英華字典』이 근대 일본어의 성립과 역어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英華字典』과의 비교 분석은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와의 영향 관계를 해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연구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선행 연구에서 주요 국가명 및 도시명에 국한하여 지명 표기를 조사하였다면, 본고에서는 『英華字典』의 전문(全文)에 출현하는 지명 표기례를 모두 추출하여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표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지명 표기를 대상으로 연구함에 따라 전체적인 표기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기존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중국의 대표적인 영중사전(英中辭典)인 『英華字典』과 메이지 초기의 서양 전문록인

10) 宮田和子(2010)『英華辭典の総合的研究-19世紀を中心として-』白帝社, pp.109-110

11) 荒川清秀(1997)『近代日中学術用語の形成と伝播-地理学用語を中心に-』白帝社, p.17

12) 이자호(2006)『『영화자휘(英華字典)』이 『부음삽도영화자휘(附音插圖英和字彙)』에 미친 영향-일치하는 역어수(譯語數)의 관점에서-』『日語日文學研究』第58輯, 한국일어일문학회, pp.107-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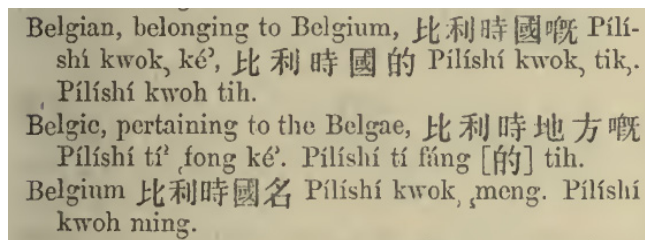
『米歐回覽實記』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를 비교 분석하여,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가 일본의 지명 표기 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英華字典』에 사용된 지명 표기례를 조사하여, 메이지 초기 일본의 대외적인 공식 보고서인 『米歐回覽實記』에 출현하는 지명의 중국 계통 표기로부터의 영향을 밝히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양 문헌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지명 표제어를 추출, 분석하여 『米歐回覽實記』에 대한 『英華字典』의 영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의 전문(全文)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를 추출하고, 용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英華字典』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 용례 데이터베이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메이지 시대에 사용된 지명 표기의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다. 『英華字典』은 중국으로 파견된 선교사 롭샤이드(Robscheid)에 의해 1866년부터 1869년 사이에 총 4권의 분책(分冊)으로 간행된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규모의 영중사전(英中辭典)이다. 본고에서는 1966년 동경미화서원(東京美華書院)에서 간행된 『英華字典』의 복제판(複製版)을 연구 자료로 하였다¹³⁾. 『英華字典』은 A部부터 Z部까지 본문이 2단(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段)에는 영어 표제어와 한자로 표기한 역어, 그리고 한자 표기어에 대한 중국어 발음이 실려 있다. 『英華字典』에 나타나는 「벨기에(Belgium)」에 대한 표기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英華字典』원저(原著)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례

13) Lobscheid(1866-1869) 『英華字典』Hong Kong(複製版 東京美華書院, 1966)

위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英華字典』에서는 지명 표제어에 대한 품사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영어 표제어 다음에 의미를 간략하게 적고, 한자 역어 및 이와 관련된 숙어를 제시하여 해당 지명 표기의 쓰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지명을 표기하는 방법은 서양 원어를 한자로 음역(音譯)한 것이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1878)의 원본(原本)을 기본 자료로 하고, 1977년 다나카 아키라(田中彰)가 교주(校註)하여 이와나미 문고(岩波文庫)에서 간행된 문고판을 연구 자료로 하였다¹⁴⁾.

조사 결과, 『英華字典』에서는 총 71개의 개별 지명에 대한 대륙명과 국가명, 도시명, 자연 지명이 출현하였다. 『米歐回覽實記』에서는 959개의 개별 지명에 대하여 총 13,431개의 표기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英華字典』의 지명 표기례는 『米歐回覽實記』에 비하면 적은 수의 지명이 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米歐回覽實記』가 실제로 구미(歐美) 각국을 방문하면서 직접 서양 문명을 체험하고 작성한 기록으로 지명 표기의 대상이 비교적 상세한 지역에까지 포괄하여 다루고 있는 반면, 『英華字典』에서는 당시 강대국을 비롯한 유럽 및 그 주변 지역에 국한되어 표기례가 출현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英華字典』에서는 미국 지역에 대하여 「뉴욕(New York)」, 「캘리포니아(California)」, 「워싱턴(Washington)」 등의 도시명에 대한 표제어가 실려 있지 않았다. 또한, 『英華字典』에 게재된 지명 표제어 71개를 『米歐回覽實記』에서도 조사한 결과 8개의 지명은 『米歐回覽實記』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양 문헌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지명은 총 63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⁵⁾.

양 문헌에서 지명을 추출하는데 있어서는 지명 표기의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英國古名(Albion)」과 같은 「영국(The United Kingdom)」에 대한 옛 이름과 「스코틀랜드(Scotland)」를 가리키는 「加利多尼亞(Caledonia)」 등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지명 표제어에 대해서도 연구 대상 표기로 추출하였다.

『英華字典』에 나타나는 지명 표제어를 추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였다. 여기에서는 국가명과 도시명에 대한 지명 표제어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역에 속한 국민, 민족이라는 의미의 파생어 또는 복합어 형태의 표제어도 게재되었다. 예를 들어, 『英華字典』제1부 304페이지에서는 「Canadian」이라는 표제어에 대하여 「加拿他嘅(pertaining to Canada)」, 「加拿他人

14) 久米邦武 編·田中彰 校註(1977)『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全5冊、岩波文庫

15) 『英華字典』에 출현하는 지명 표제어 가운데 『米歐回覽實記』에는 출현하지 않은 표기례는 총 8개로 조사되었다. 그 표제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海鷗(Alabatross, 제1부 p.48), 英國古名(Albion, 제1부 p.48), 屬啞喇便山(Alpine, 제1부 p.49), 加利多尼亞(Caledonia, 제2부 p.296), 澳門(Macao, 제3부 p.1188), 麻羅哥皮(Morocco, 제3부 p.1196), 伯國(Palatinate(라인 강 서부의 지방), 제3부 p.1275), 敘利亞的(Syriac, Syrian, 제4부 p.1741)

(inhabitant or native of Canada)」과 같은 한자 역어(譯語)가 제시되었다. 즉, 『英華字典』에서는 「Canada」를 표제어로 게재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파생어 형태인 「Canadian」을 표제어로 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페인(Spain)」에 대해서도 국가명을 나타내는 표제어가 아니라 「Spanish (西班牙的)」와 같이 파생어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때 역어로 게재된 지명에 접속된 조사 또는 명사에는 「嘅」, 「的」¹⁶⁾, 「人」¹⁷⁾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英華字典』은 소도시나 마을 등 지명의 하위 분류 지역에 대한 표제어를 상세하게 제시하기 보다는 사전의 특성상 접사와 결합하는 파생어 또는 명사를 덧붙인 복합어의 어형을 표제어로 게재함으로써, 당시 주요 국가명 및 도시명에 대한 다양한 쓰임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지명 표기의 실태를 면밀하게 밝히기 위하여 『英華字典』에 나타나는 파생어 및 복합어 형태의 지명도 표제어로 추출,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지명 표제어가 파생어로만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한자 역어의 접사를 제외한 부분을 지명 표기로 보고 『米歐回覽實記』에 출현하는 표기와 비교 고찰하였다¹⁸⁾.

이하, 일본에서의 지명 표기가 전통적인 중국 계통의 표기 방식을 계승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英華字典』과 메이지 초기의 서양 전문록인 『米歐回覽實記』와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3.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의 비교

본 연구는 메이지 초기 일본의 지명 표기의 중국 계통 표기로부터의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에 사용된 지명 표기례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16) 중국어에서 「的」이라는 조사는 문장 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① 조사로서 관형어 뒤에 쓰여, 관형어와 중심어 사이가 종속 관계임을 나타낸다.

例) 中国的长城 중국의 만리장성

② 조사로서 관형어 뒤에 쓰여, 관형어와 중심어 사이가 일반 수식 관계임을 나타낸다.

例) 迷人的风光 매력적인 경치

17) 「人」은 ‘인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휘이다. 일본어에서 「人」은 「ひと」와 같이 혼독하여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2자(二字)이상의 한자어의 조어(造語) 성분으로 사용된다. 이때에는 「恋人(こいびと)」와 같이 자훈(字訓)으로 읽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ジン」, 「ニン」과 같이 자음(字音)으로 읽는 조어성분이 대부분이다. (沈国威・内田慶市編(2014)「環流する東アジアの近代新語訳語」『文化交渉と言語接触研究・資料叢刊4』関西大学アジア文化研究センター, pp.223-224)

18) 『英華字典』에서 지명 표기가 파생어로만 게재된 지명은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지명 표제어에 대한 파생어 또는 복합어 형태의 모든 역어 표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加拿他嘅, 加拿他人(Canadian), 駕大哥人(Carthaginian), 高加索山(Caucasian), 日耳曼國的(German), 希臘國的, 希臘人(Grecian), 以大利的, 以大利國的(Italian), 西班牙的, 大呂宋的(Spanish), 阿爾蘭的(Irish)」

이를 통해 일본에서의 지명 표기가 전통적인 중국 표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즉, 일본의 지명 표기에 대한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英華字典』의 지명 표기례를 조사하여 『米歐回覽實記』에 나타나는 표기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3.1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에서 일치하는 지명 표기

여기에서는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에서 일치하는 지명 표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양 문헌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표기례는 해당 지명이 중국 기원의 표기로서 중국의 표기 방식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동일한 표기가 사용되어 그 표기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표기례는 양 문헌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63개 지명 중에서 총 27개로 42.8%의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 문헌에서 일치하는 지명 표기를 제시하면 「亞細亞(Asia), 大西洋(Atlantic), 大英國(Britain), 孟買(Bombay), 加拿他嘅, 加拿他人(Canadian), 高加索山(Caucasian), 大尼国(Denmark), 埃及國(Egypt), 英吉利國(England), 歐羅巴(Europe), 佛蘭西國(France), 日耳曼國的(German), 希臘國的(Grecian), 印度(India), 地中海(Mediterranean Sea), 黑海(Black Sea), 葡萄牙(Portugal), 普魯士國(Prussia), 羅馬(Roman), 西班牙的(Spanish)」 등이 해당한다.

위에서 제시한 지명의 분포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양 문헌에서 일치하는 지명은 「로마(羅馬)」, 「그리스(希臘國)」, 「이집트(埃及國)」, 「인도(印度)」 등 서양의 고대 국가와 일찍이 불교 경전이나 한적(漢籍)에 등장하는 지명으로 한자 사용이 일반화된 지역이다. 아울러 「영국(大英國)」과 「잉글랜드(英吉利國)」, 「프랑스(佛蘭西國)」, 「독일(日耳曼國)」, 「프로시아(普魯士國)」 등 선진 문명의 발상지이자 유럽의 주요 강국에 해당하는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아시아(亞細亞)」, 「유럽(歐羅巴)」 등 대륙명에 대한 표기, 그리고 「大西洋(Atlantic)」, 「黑海(Black Sea)」, 「地中海(Mediterranean Sea)」 등 해양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의 표기가 일치하였는데, 이들 지명에 한하여서는 하나의 어형(語形)으로 정착되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양 문헌에서 일치하는 지명에는 『英華字典』에서 지명 표제어의 파생어 및 복합어 형태도 함께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지명 표제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Britain, Great, 大英國 Táiying kwok, Táiying kwoh

British, pertaining to Great Britain or its inhabitants, 大英國的, Táiying kwok, tik.

Táiyíng kwoh tih, 大英國人的, Táiyíng kwok, yan tik, Táiyíng kwoh jin tih.

- England 大英國 Tá Ying kwoh, 英吉利國 Yingkatlí kwok, Yingkihí kwoh
English 英國嘅 Ying kwok ké, 大英國的 Tá Ying keoh tih, 英吉利嘅 Yingkatlí ké
- Egypt 埃及國名 Oik'ap kwok, meng. Ngáikih kwoh ming
Egyptian, an, 埃及國人 Oik'ap kwok, yan. Ngáikih kwoh jin
- Europe 歐羅巴 Aulopá. Ngaulopá ; the continent of Europe, 歐羅巴州 Aulopá chau.
Ngaulopá chau ; the states on the continent of Europe, 歐羅巴諸國 Aulopá chū kwok,
Ngaulopá chú kwoh.
European 歐羅巴嘅 Aulopá ké', 歐羅巴的 Aulopá tik, Ngaulopá tih
- France 佛蘭西國 Fatlánsai kwok, Fuhlánsi kwoh.
French 佛蘭西嘅 Fatlánsai ké', 法國的 Fát, kwok, tik, Fáh kwoh tih
- Prussia 普魯士國 P'òlòsz keok, P'úlúsz kwoh.
Prussian 普魯士國的 P'òlòsz tik, P'úlúsz tili

위의 표기례에서 보듯이, 양 문헌에서 일치하는 지명 중에서도 이들 6개 지역명에 대해서는 『英華字典』에서 지명 표제어뿐만 아니라 파생어와 복합어 형태의 어형도 함께 표제어로 제시되었다. 즉, 「유럽(Europe), 영국(Britain), 잉글랜드(England), 프랑스(France), 이집트(Egypt), 프러시아(Prussia)」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人」이 접속된 복합어와 「的」 또는 「嘅」가 접속된 파생어 형태의 표제어가 게재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당시 발달된 서양 문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지역으로 이와 관련된 어휘가 파생어 및 복합어 형태의 다양한 어형으로 출현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英華字典』에서 서양 지명을 표기하는 방법은 한자를 매개어로 하여 번역하는 방법이다. 번역법은 한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한자의 음을 이용한 음역법과 한자의 의미를 이용하여 표기한 의역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 문헌에서 일치하는 지명 가운데 음역에 의한 한자 표기를 조사한 결과, 85%의 비율로 나타나 지명 표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서양 원어의 발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자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음이 같으면 글자를 빌려 쓰는 가차(假借)의 방법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서양 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는 한자가 가지는 표의성과 표음성 중 표음성에 의해 조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 문헌에서 일치하는 지명 표기는 일본에서 중국 한자음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중국 계통 표기를 계승한 것이라 하겠다. 에도 시대부터 사용해 오던 주요 국가명 및 대륙명에 대해서는 메이지 시대에 이르러서도 동일한 표기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이 시기에도 중국식 표기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3.2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에서 일치하지 않는 지명 표기

여기에서는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에서 일치하지 않는 지명 표기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양 문헌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지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英華字典』의 영향을 받지 않고 『米歐回覽實記』에서 일본 한자음에 맞는 독자적인 표기를 고안해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한자 지명 표기는 중국 한자음에 입각한 음역 표기로서, 일본 한자음으로 읽게 되면 서양 원음과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즉, 음역 지명 표기는 중국어음으로 읽을 때에는 서양 원어음(原語音)에 가깝게 발음되지만, 일본 한자음으로 읽게 되면 본래 발음과 동떨어져 실제 원음과 거리가 먼 음형(音形)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서양 원음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한자로 표기할 때, 중국 한자음이 아닌 자국의 한자음에 맞는 표기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다¹⁹⁾. 여기에 해당하는 지명 표기례는 <표 1>과 같다.

<표 1> 『米歐回覽實記』에서 새롭게 고안해낸 지명 표기

서양 원음	『英華字典』	『米歐回覽實記』
Africa	亞非利加	弗, 亜弗利加
Australia	新阿蘭	豪, 豪洲, 豪斯多辣利, 豪斯多拉利, 豪斯多刺利
Belgium	比利時國	白, 白国, 白耳義
Brazil	巴西國	伯爾西
Germany	日耳曼國	独, 独乙, 独逸, 熱爾馬泥亜, 日, 日耳曼
Italy	以大利國	以, 以国, 以太利
Russia	俄羅斯國	露, 露国, 露西亞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英華字典』에서는 「아프리카(Africa)」에 대하여 중국 한자

19) 중국 계통의 지명 표기는 음역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양 원음에 맞는 한자를 대응시켰다. 『英華萃林韻府』(1872)의 음역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亞, ab a 押, ac ak 握, ach ak 厄, ad ak 鉅, æ 伊, af 亞付, ah 蝦, ai 孩, ok hak 克, al 厥, am 俺, an 安, ang 昂, ao 傲, ap 鴨, as 亞士, at 壓, au 听, auck ok 壘, ax aksz 克仕, az 亞私, aw 拗, …(후략)

『英華萃林韻府』(1872:Part III 408)

이와 같이 음역표의 제정에 의한 규칙은 중국 한자음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 일본 한자음과 일치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서양 원어음과 관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한자 음역 표기가 일본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원음과 상이한 경우에는 일본 한자음에 맞도록 다른 한자를 대응시켜 표기하였던 것이다.

음에 근거하여 두 번째 음절을 「非」[fēi]로 대응시킨 「亞非利加」로 표기하였다²⁰⁾. 이것은 중국 최초의 한역 세계지도인 『坤輿萬國全圖』에서도 동일한 표기가 출현하고 있어 전형적인 중국 기원의 표기라고 할 수 있다. 『米歐回覽實記』에서는 「非」[fēi]라는 한자를 [fu]로 발음하기 어려웠으므로, 서양 원음에 보다 근접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弗」이라는 한자를 대응시켜 「亜弗利加」와 같이 새로운 표기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다²¹⁾.

다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에 대해서는 『英華字典』제1부 p.116에서 음역과 의역이 혼용된 「新荷蘭」이라는 표기가 출현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한역(漢譯) 세계 지리서인 『海國圖志』와 『瀛環志略』의 표기와도 일치하는 어형으로 나타난 것이다²²⁾. 반면, 『米歐回覽實記』에서는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양 원음의 각 음절에 맞는 한자를 대응시켜 「豪斯多辣利, 豪斯多拉利」라는 새로운 표기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다²³⁾.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는 당시 중국 최초의 한역 세계 지도인 『坤輿萬國全圖』가 저술된 이후에 발견된 신대륙이었으므로,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다른 서양 지명에 비하여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표기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울러 일본어의 음절 구조를 고려하여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에 대한 한자 음역 표기를 살펴보면, 『米歐回覽實記』에서는 서양 원음을 「Au/s/t/ra/lia」와 같이 5개의 음절로 구분하고, 각 음절에서 모음이 동반되지 않은 자음 [s]와 [t]에 모음을 첨가하여 [su]에 대한 음역 표기 「斯」, 그리고 [ta] 음절에 대해서는 「多」라는 한자를 대응시켜 일본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새로운 표기를 만들어 냈다. 일본어의 기본적인 음절 구조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20) 『英華字典』제1부 p.35에서는 「아프리카(Africa)」의 표제어에 대하여 「亜弗利加(Afiliká)」와 같이 한자 역어와 중국어 발음을 제시하였다.

21) 『米歐回覽實記』에 나타나는 「아프리카(Africa)」에 대한 표기례는 다음과 같다.

亜弗利加ノ炎皛ハ、露境ニ流ルルモ、独逸ニ感触少シ、仏国、西班牙国ハ、山脈南北ヲ互ルコト多キヲ以テ、独逸ノ東西ニ綿互セル山ヲ遮蔽スルヨリ、温熱ニ感スルコト強キカ如シ

(『米歐回覽實記』第九十一卷 歐羅巴洲氣候及ヒ農業總論, p.178)

22) 중국의 한역 세계 지리서인 『海國圖志』와 『瀛環志略』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乃建设埔头、名之曰澳大利亚、又称新荷兰。旋为佛郎西所夺、佛人寻弃去。最后英吉利得之、因其土地之广、坚意垦辟。

(『海國圖志』卷十六, p.595)

澳大利亞。一名新荷蘭。在亞細亞東南洋巴布亞島之南。周廻約萬餘里。

(『瀛環志略』東南洋各島, p.24)

23) 『米歐回覽實記』에서는 「Australi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鉦産モ亦富メリ、中ニ就テ細白里ノ金鉦ハ、米ノ加利福尼ト、英領豪斯多辣利ト、世界三大鉦ノ一タリ

(『米歐回覽實記』第六十一卷 露西亞國總說 p.30)

南洋ニ於テハ、豪斯多拉利洲及ヒ「ニューゼーランド」ヲ所属シ、北亜墨利加ニ於テハ、合衆国ノ北ナル広土、南亜墨利加ニ於テハ、「パナマ」「グイナ」「アンチルレン」ノ群島、多ク此国ノ所轄ナリ

(『米歐回覽實記』第二十一卷 英吉利國總說 p.22)

개음절(open syllable) 구조이다. 반면, 영어는 폐음절(closed syllable) 구조이기 때문에 서양 원어가 일본어에 유입될 때에는 모음이 첨가되는 개음절화 규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에 대하여 『米欧回覽実記』에서 「豪斯多辣利, 豪斯多拉利」와 같이 음절이 추가되어 5음절 이상의 표기로 나타나는 것은 서양 원음을 외래어로 받아들여 일본어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개음절화 규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米欧回覽実記』에 나타나는 「豪斯多辣利, 豪斯多拉利」의 표기는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를 계승하지 않고, 일본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독자적으로 고안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벨기에(Belgium)」에 대하여 『英華字典』에서는 「比利時國」으로 표기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자료인 『瀛環志略』은 물론 『海國圖志』에서도 동일한 표기가 사용되었다. 이들 자료에서는 추가적으로 「比利時, 比利閏, 比勒治」와 같이 첫 음절이 「比」로 음역된 표기도 출현하였다²⁴⁾. 하지만 이들 지명 표기를 일본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첫 음절을 「比」[ヒ]로 대응시켜 발음하게 되면 ‘Belgium’이라는 서양 원어음과의 관련성이 멀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米欧回覽実記』에서는 자국의 한자음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白」이라는 한자로 바꾸어 일본 고유의 표기를 만들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끝 음절에 대응된 「時」라는 한자는 일본 한자음으로는 [シ・ジ]로 발음되기 때문에, 『米欧回覽実記』에서는 서양 원음에 가깝게 발음될 수 있도록 「義」[ギ]라는 한자를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에서는 중국 한자음에 기초하여 발음하기 어려운 중국식 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서양 원음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자국의 음운 체계에 맞는 표기로 발전시켜 사용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브라질(Brazil)」에 대하여 『英華字典』에서는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만든 다양한 형태의 중국식 표기 가운데 「巴西」라는 표기를 사용하였고, 『米欧回覽実記』에서는 「伯爾西」로 표기하였다. 이것은 『海國圖志』의 표기인 「伯西爾」과 유사한 어형으로서, 일부분 중국 표기의 영향을 받은 지명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米欧回覽実記』에서 「伯爾西」와 같이 첫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에 대한 음역 표기가 바뀌어 대응된 점은 각국 음절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海國圖志』의 「伯西爾」라는 표기는 서양 원음(原音)을 「Bra/zi/lu」로 구분하고 첫 번째 자음 [b]에 모음을 첨가하지 않고 [bra]를 하나의 음절로 보고 한자를 대응시킨 것이며, 『米欧回覽実記』에서는 서양 원음을 「Bu/ra/zil」로 구분하고 자음 [b]에 [u]모음을 첨가하여 일본어의 개음절 구조를 반영시킨 음역 어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伯西爾」와

24) 『海國圖志』와 『瀛環志略』에 나타나는 「Belgium」에 대한 표기례는 다음과 같다.

而比利时毗近佛郎西, 顾独从佛俗, 尚天主教, 又凤隶西班牙, 奥地利, 皆天主教国。

(『海國圖志』卷四十, p.1183)

比利時歐羅巴小國也北界荷蘭西北距大西洋海西南暨正南俱界佛郎西東接普魯士西部縱約五百里

(『瀛環志略』第六卷 比利時國, p.543)

「伯爾西」라는 지명 표기는 단순히 한자를 바꾸어 원음에 대응시킨 것이 아니라 각국 언어의 음절 구조를 고려한 표기 형태라 하겠다. 따라서 「브라질(Brazil)」에 대한 표기는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받은 지명이 아닌 각국의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어형을 사용한 표기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독일(Germany)」에 대해서는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実記』에서 일치하는 표기로서 ‘게르만(German)’이라는 민족명에서 유래한 「日耳曼」이 사용되었다. 그 밖에 『米歐回覽実記』에서는 「獨逸」과 같은 표기도 출현하였다. 「독일(Germany)」에 대한 「獨逸」이라는 표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이칠랜드(Deutschland)」를 음역한 중국의 표기인 「德意志」를 따르지 않고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고안한 표기로서, 오히려 일본에서 만들어낸 표기가 역으로 중국의 지명 표기에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초 당시 중국에서는 일본 유학의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일본어로 된 방대한 양의 서양 서적을 번역하는 활동이 행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 서적의 중역본(重譯本)이 다량으로 중국에 유입되었으며, 통계에 따르면 1900년 이전에 중역된 일본어 서적은 321종에 달하며 이것은 총 번역서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⁵⁾. 이들 번역서를 통해 일본의 번역어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이 「독일(Germany)」에 대하여 중국어 번역어인 「德意志」가 아닌 「獨逸」로 번역하여 표기한 것은 한자 문화권에 있어 근대어 교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표기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Italy)」에 대해서는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実記』에서 「以大利」와 「以太利」로 두 번째 [ta]음절에 대한 표기가 다르게 대응되었다. [ta]음절에 대하여 『英華字典』을 비롯한 중국 자료에서는 모두 「大」를 대응시킨 반면, 『米歐回覽実記』에서는 일본 한자음에 맞게 「太」라는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들 한자를 일본 한자음으로 읽게 되면 「大」는 [だい]로 발음되고 「太」는 [た・たい]로 발음되기 때문에, 『米歐回覽実記』에서는 서양 원음에 근접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자음이 [t]로 시작하는 「太」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식 표기를 받아들여, 자국의 한자음에 맞지 않는 음절에 대해서는 일부분 표기 형태를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지명을 표기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Russia)」에 대하여 『英華字典』에서는 「俄羅斯國」으로 표기하였다면, 『米歐回覽実記』에서는 자국의 한자음에 맞는 「露西亜」라는 한자로 음역 표기하였다. Smith(1870)에서는

25) 중국의 번역어 ‘미국(美國)’과 ‘아라사(俄羅斯)’를 일본에서는 ‘미국(米國)’과 ‘로시아(露西亞)’로 번역하였다. 이들 일본어 번역어는 어떠한 수정도 거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베껴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인접성과 문화 교류의 빈번함으로 인해 일본어 번역어가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는 추세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썬우전환 지음·한지은 옮김(2013)『지리학의 창으로 보는 중국의 근대』푸른 역사, p.358)

『英華字典』의 「俄羅斯」라는 표기에 대하여 몽골어 「Ooroos」 또는 「oros」의 원음을 한자로 번역한 표기라고 기술한 바 있다²⁶⁾. 일본에서는 「俄羅斯」라는 표기가 일본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서양 원음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어식 발음을 반영하여 「Russia」의 원음에 맞는 일본 한자음을 대응시켜 일본 고유의 표기인 「露西亜」로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 『英華字典』의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양 원음에 근접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고안한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표기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당시 일본은 에도 막부 말기까지 중국을 통하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으므로 이때 전래된 중국 문헌에 나오는 한자 표기를 따르면서도, 서양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한 1860년대 말부터는 표기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 중국식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서양 원음을 일본 한자음에 맞게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명 표기 방법도 에도 시대의 중국식 표기 일변도에서 점차 일본 자국의 음운 체계에 맞는 표기를 고안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둘째,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의 표기가 완전히 일치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한역(漢譯) 세계 지리서의 표기와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米歐回覽實記』에 출현하는 지명 표기가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받은 지명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지만, 단순히 『英華字典』과의 일치 여부를 통해서는 중국 계통 표기인지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료의 범위를 넓혀 중국의 한역 세계 지리서인 『해국도지(海國圖志)』 및 『영환지략(瀛環志略)』과도 비교 고찰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중국 계통 표기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영중사전(英中辭典)인 『英華字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海國圖志』와 『瀛環志略』에 나타나는 표기와의 비교도 행하기로 한다²⁷⁾. 분석 결과, 『英華字典』의 표기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중국식 표기의 영향을 받은 지명으로는 「미국(America), 아라비아(Arabia), 오스트리아(Austria), 아일랜드(Ireland), 런던(London), 파리(Paris)」 등의 표기가 조사되었다.

26) Smith(1870)의 『A Vocabulary of Proper Names』에서는 「러시아(Russia)」의 지명 표기의 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하, 밑줄은 필자)

俄羅斯 *Ngo-ko(sic) -si*, the usual translation of the word into Chinese. This is perhaps a transference of the Mongol word *Ooroos*, or *oros* into Chinese, that being the name for Russia, first known to the Chinese during the early part of the Ming dynasty. The intervention of the *Kara Kitai*, exterminated by the Mongols, after a long rule over the north of China, had prevented any knowledge of China Proper.

27) 『해국도지(海國圖志)』는 『곤여도설(坤輿圖說)』, 『직방외기(職方外紀)』, 『지구전도(地球全圖)』, 『사주지(四洲志)』, 『외국사략(外國史略)』, 『만국도서집(萬國圖書集)』 등 중국 자료에 나타나는 용례도 기록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를 계승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海國圖志』의 표기와 일치하는 지명은 중국 기원의 표기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 『米歐回覽實記』의 지명이 중국의 한역 세계 지리서와 일치하는 표기례

서양 원음	英華字典	米歐回覽實記	中國 漢譯 地理書
America	亞美利加, 花旗國, 合國	米, 米國, 米利堅, 米利堅合衆國, 亞米 利加, 米洲, 米利加洲, 亜墨利加, 米合 衆國, 合衆國	亜墨利加, 米利堅, 合衆國
Arabia	亞喇伯國	阿剌伯, 亜刺伯, 亜刺比亞	亜刺伯, 阿剌伯
Austria	奧地哩亞國	奧, 奧國, 奧地利	奧地哩亞, 奧地利
Ireland	阿爾蘭的	愛, 愛蘭, 愛倫	愛倫
London	倫頓	倫敦	倫敦
Paris	巴利士	巴黎	巴黎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英華字典』에서는 「미국(America)」에 대한 표기로서 음역 표기인 「亞美利加(Amíliká)」와 의역 표기인 깃발의 형상을 딴 「花旗國(Fák'i kwok, Hwák'i kwoh)」, 여러 개의 주(州)가 합쳐졌다는 의미의 「合國(Hóp kwok, Hoh kwoh)」이 출현하였다. 『米歐回覽實記』에서도 하나의 통일된 표기가 아닌 복수(複數)의 다양한 표기가 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米利堅」, 「亜墨利加」, 「亞米利加」, 「米利加」와 같이 한자의 음(音)을 이용한 음역 표기와 「米」, 「米洲」, 「米地」, 「米國」과 같이 음역어의 두문자(頭文字) 「米」를 활용한 약어(略語) 표기도 나타났다. 또한, 「合衆國」이라는 의역 지명 표기, 그리고 음역과 의역이 혼용(混用)된 「米合衆國」, 「米利堅合衆國」과 같은 다양한 어형이 출현하였다.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에서 일치하는 표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米歐回覽實記』의 「亜墨利加」, 「米利堅」, 「合衆國」 등의 표기는 『海國圖志』와 『瀛環志略』의 표기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일부분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받은 지명이라 할 수 있다²⁸⁾.

「아라비아(Arabia)」에 대하여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에 나타나는 「亞喇伯」과 「亜刺伯」이라는 표기는 두 번째 [ra]음절에 대응하는 한자 부수(部首)의 차이로 인하여 완전히 일치하는 어형(語形)으로 출현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米歐回覽實記』의 「亜刺伯, 阿剌伯」이라는 표기는 『海國圖志』 卷二十四 784페이지의 「阿剌伯地分六部, 首部曰黑德倭斯, 都城曰麦加, 建于山谷之中, 夏屋云连, 街衢阔直」에 나타나는 지명, 그리고 『海國圖志』 卷二十六 812페이지의 「亞刺伯回部据之」의 표기와 일치하는 어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 계통 표기의

28) 「미국(America)」에 대하여 『海國圖志』와 『瀛環志略』에 나타나는 표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育奈土迭国, 华言合众国也, 即所称花旗国, 又曰弥利坚, 在亚美利加州北区之中。

(『海國圖志』卷五, p.349)

地球大勢言之三土在東亞墨利加在西三土在地球之面亞墨利加在地球之背也。

(『瀛環志略』第九卷 亞墨利加, p.709)

영향을 받은 지명이라 할 수 있다.

「런던(London)」에 대해서도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에서는 「倫頓」[dūn]과 「倫敦」[dūn]과 같이 두 번째 음절에서 서로 다른 표기 형태로 출현하였다. 하지만, 『米歐回覽實記』의 「倫敦」이라는 표기는 『瀛環志略』第七卷 619페이지의 「宋眞宗十九年大尼大居大舉來伐破倫敦都城遂兼英其王曰駕奴特」에 나타나는 표기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통적인 중국 계통의 표기를 계승한 지명이라 하겠다.

또한, 「파리(Paris)」에 대하여 『英華字典』에서 음역어(音譯語)로 제시된 「巴利士」라는 표기는 『米歐回覽實記』의 「巴黎」라는 표기와 동일한 한자가 대응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중국의 세계 지리서 『海國圖志』卷十六 587페이지의 「經度巴黎午線東九十一度起至一百零五度止」에 나타나는 표기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중국 계통의 표기 방식이 반영된 지명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지명들은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의 양 문헌에서는 서로 다른 어형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의 한역 세계 지리서의 표기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米歐回覽實記』의 지명 표기의 일부분은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메이지 초기에는 에도 시대부터 사용해 오던 중국 계통 표기를 받아들이면서도 일본 한자음에 맞는 일본 고유의 표기를 만들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 있어 이들 표기가 공존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英華字典』에서는 한자의 음이나 뜻을 이용한 번역법으로 지명을 표기하였다면, 『米歐回覽實記』에서는 자국의 문자인 가타카나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여기에는 「알프스(Alps), 보르네오(Borneo), 카르파티아(Carpathian), 뉴질랜드(New Zealand)」 등의 지명이 포함된다.

<표 3>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에서 일치하지 않는 지명 표기

서양 원음	『英華字典』	『米歐回覽實記』
Alps	崇山	アルプス
Borneo	波羅	ボルネオ
Carpathian	加耳巴地嶺	カルパチアン
New Zealand	新西蘭	ニューゼーランド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英華字典』에서는 「알프스(崇山)」에 대하여 한자의 의미를 이용하여 표기하였으며, 「보르네오(波羅)」와 「카르파티안(加耳巴地)」에 대해서는 한자의 음(音)을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그 밖에 「뉴질랜드(New Zealand)」는 한자의 음과 의미를 혼용하여 「新

西蘭』으로 표기하였다. 이에 반해 『米歐回覽實記』에서는 서양 원음의 각 음절에 맞게 자국의 문자인 가타카나를 대응시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지명을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 메이지 시대에 이르러 한자만을 사용하던 중국의 표기 방식에서 자국의 문자도 사용해지는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英華字典』과 『米歐回覽實記』의 양 문헌에서 일치하지 않는 지명 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메이지 초기 당시는 한학(漢學)의 영향으로 중국 한자음에 입각한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를 사용하였지만, 서양 문물이 유입되고 서양 지명의 사용이 빈번해 지자 자국의 한자음에 맞는 표기를 고안하거나 가타카나 문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기 형태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 나오며

이상, 중국의 대표적인 영중사전(英中辭典)인 『英華字典』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의 실태를 고찰하고, 이러한 표기 방법이 일본에서의 지명 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메이지 초기의 서양 전문록인 『米歐回覽實記』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英華字典』에서는 유럽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총 71개의 개별 지명에 대한 지명 표기가 게재되었고, 사전이라는 특성상 지명 표제어는 복합어 또는 파생어 형태로도 나타났다. 양 문헌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지명 표기를 분석한 결과, 그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표기례는 총 27개로 42.8%의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는 「유럽(歐羅巴)」, 「영국(大英國)」, 「잉글랜드(英吉利國)」, 「프랑스(佛蘭西)」 등 유럽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표기가 다수 포함되었다.

『米歐回覽實記』에서 『英華字典』과 일치하는 표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중국 한자음에 입각한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양 문헌에서 일치하는 지명 표기 또한 절반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 당시 통용되던 지명 표기가 메이지 초기에 이르러서도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米歐回覽實記』가 국가의 공적 보고서였던 만큼 유럽 강대국을 비롯한 주요 지역명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사용하던 전통적인 표기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기존 중국에서 사용하던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롭게 고안해낸 일본 고유의 표기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들 표기는 현대어 사전에도 표제어로 게재되고

있어 현재 통용되는 표준 어형으로서 오늘날의 표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명 표기의 형태가 변화해 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중국 계통 표기를 따르면 서도 일부 새롭게 일본 고유의 표기를 창안하여 이들 표기가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근대 일본어의 성립과 역어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준 『英華字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 계통 표기와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지명의 개별적인 표기례를 조사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실증적인 고찰을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參考文獻】

- 金敬鎬(1998)『漢字表記에 의해 形成된 外國地名의 考察』『人文社會科學研究』제5권, 호남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257-279
- 이자호(2006)『『영화사전(英華字典)』이『부음삽도영화자휘(附音插圖英和字彙)』에 미친 영향-일치하는 역어수(譯語數)의 관점에서-』『日語日文學研究』第58輯, 한국일어일문학회, pp.107-120
- _____(2009)『『부음삽도영화자휘(附音插圖英和字彙)』의 외국 지명 표기』『日語日文學研究』제6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183-200
- 쩌우전환 지음·한지은 옮김(2013)『지리학의 창으로 보는 중국의 근대』푸른 역사, p.358
- 페데리코 나시니 지음, 이정재 옮김(2005)『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소명출판, pp.65-66
- 荒川清秀(1997)『近代日中学術用語の形成と伝播-地理学用語を中心に-』白帝社, p.17
- 小林ミナ(1997)『日本語学習者は英語をどう開音節化するか-英語を母語としない初級学習者の場合』『北海道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1』北海道大学留学生センター, pp.55-56
- 久米邦武 編・田中彰 校註(1977)『特命全權大使 米欧回覽実記』全5冊, 岩波文庫
- 千葉謙悟(2011)『19世紀音訳語の資料・特徴・交流』『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別冊7』関西大学, pp.95-121
- 宮田和子(2010)『英華辞典の総合的研究-19世紀を中心として-』白帝社, pp.109-110
- 沈国威(1994)『近代日中語彙交流史-新漢語の生成と受容-』笠間書院, pp.135-142
- 沈国威・内田慶市編(2014)『環流する東アジアの近代新語訳語』『文化交渉と言語接触研究・資料叢刊4』関西大学アジア文化研究センター, pp.223-224
- 王敏東(1995)『外国地名の漢字表記についての通時的研究』大阪大学博士学位論文, p.63
- Lobscheid, W(2012)『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 with the Punti and Mandarin pronunciation 1』Nabu Press

논문투고일 : 2014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1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1월 19일

 <要旨>

『英華字典』에 나타나는 음역 지명 표기 연구

- 『米欧回覽實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본고는 메이지 초기에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에서 일본 고유 의 독자적인 표기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대외적인 공식 보고서 『米欧回覽實記』가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근대 일본어의 성립에 커다란 영향을 준 『英華字典』과 비교 고찰한 것이다. 분석 결과, 양 문헌에서 동일한 표기가 사용되어 그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표기례는 총 27개로 42.8%의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는 유럽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표기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양 문헌에서 일치하는 지명 또한 절반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 당시 통용되던 지명 표기가 메이지 초기에 이르러서도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존 중국에서 사용하던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롭게 고안해낸 일본 고유의 표기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들 표기는 현대어 사전에도 표제어로 게재되고 있어 현재 통용되는 표준 어형으로서 오늘날의 표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지명 표기의 형태가 변화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일본에서는 중국 계통 표기를 따르면서도 일부 새롭게 일본 고유의 표기를 창안하여 이들 표기가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Study on the Foreign Place Notation in 『Ekazitten』

- By comparison with 『Beoukairanzitki』 -

This study comparatively examines the dictionary 『Ekazitten』 that is a basic material for language studies and 『Beoukairanzitki』, an official foreign report in the transition era to Japanese original characteristic place notation from traditional Chinese place notation in the early Meiji to investigate how the Japanese notation was affected by that of Chinese.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re were 27 items of notation fully identical to each other in forms in both literary documents, with a consistency rate of 42.8%. As there were many place notations applicable to European main regions included in both literary documents from which half of place names were found to be identical to each other, it can be said that the place notations in common use at the time were affected to the early Meiji by Chinese place notation. In the mean time, it is found that there were Japanese original notations newly devised in no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notation used in China and that as they appeared as entry words for today's contemporary dictionaries, those notations still affect today's place notations as standard word forms. Eventually, through this study, in notating places, it is found that the Chinese place notation and the Japanese original notation coexisted in the transition era from the Chinese notation centered on Sinology in the Edo period to the Japanese original notation devised for Sino-Japanese sounds owing to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ivilization in the early Meiji.